통권 제91호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씩씩한 어린이집/해바라기 방과후) 월간 소식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땅 위로 불룩불룩 몸매를 드러낸 감자를 캐낸 씩씩한 어린이집 아이들. 묵은 감자 밭에 재를 묻혀 심은 데서 주렁주렁 감자들이 딸려 나오는 게 신기한지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며 좋아했지요.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터전소식/19
교사대회 후기/24
특집/27
날적이 톺아보기/28
편집후기/31

2012.8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나누며 사는 사회

아이들의 해맑은 **꿈**과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1995년 8월에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뒹굴고 놀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 안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어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다란 삶의 놀이터'이자
'열린 공동체'가 바로 대구 공동육아 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과 '해바라기 방과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64-6
053-791-6879(씩씩한 어린이집)
053-793-6879(해바라기 방과후)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내 삶의 짐을 아이에게 주지 않기를...

강미영(명예조합원 유준상엄마)

참으로 오랜만에 씩씩한의 가족들을 향해 얘기를 하게 되었다. 지현이가 씩씩한을 졸업한 지 삼년..... 물리적 거리야 여전히 똑같지만, 나와 내 가족의 삶은 씩씩한으로부터 많이 떠나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고민하고, 성장하고 또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젠 우리 가족을 기억하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모역할에 서툰 엄마로서 하루하루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씩씩한의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부모가 되기를 바랄 것인지 이야길 나누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지현이의 간디학교 입학원서를 냈다. 삼년 전 첫아이의 원서를 쓸 때와는 또 다른 감회가 한 사나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아마 첫 아이가 입학 후 여러 가지 친구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등 힘든 일이 많은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복잡한 심사가 둘째의 대안학교 입학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다. 입학원서 중에 총 7가지 학부모 설문이 있는데 이번에'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학부모상'에 대해 적는 난이 새로 생겼다. 아래는 고민 끝에 내가 적어놓은 답들이다.

첫째. 자녀와 독립적인 관계를 맺는 학부모가 되고자 한다. 내 삶의 짐을 아이에게 주지 않으며, 아이 삶의 짐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았으면 한다.

둘째. 삶에 대한 낙관을 내 삶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생의 오만가지 맛 속에는 쓰디쓴 맛도 있지만, 달달한 맛도 있으며, 쓰면서도 단 맛을 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삶의 역동이란 것을, 그리하여 항상 삶의 한 중간에 나를 겁 없이 놓아둘 수 있는 용기와 낙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과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다. 모두가 주눅 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내 앞에서만큼은 주눅 들지 않도록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엄마이고 싶다.

첫 아이가 간디학교에 입학할 때, 나 또한 상담심리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고자 다짐했었다. 아들의 폭풍 같은 열네살 열다섯살 열여섯살을 함께 겪으며 많이 아팠고, 화냈고, 솔직히 많이 미워했다. 처음엔 아이 잘못이라 생각했다. 지 성격이 별나서, 까칠해서, 또는 모자라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부모 축에 속할 거라 내심 자만했었다. 하지만 공부를 할수록, 나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록 '내가 하고 있는 부모노릇이 뭔가 아니구나.'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는 지금껏 내 삶의 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마구 지어주었고, 아이 삶의 짐을 허락 없이 마구 가져왔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인정에 연연하며 진정 삶을 그 자체로 경험하며 느끼지 못하고 위축된 채 살아왔고, 그런 내 모습은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삶이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을 맘껏 누리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 판단, 불안에 자기 삶을 잠식당하며 힘들어하게 만들어놓고, 그 또한 아이 탓이라 내심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나는 짐 내려놓기에 마음이 바쁘다. (몸이 아닌 마음만 바쁜 것은 아직 실천으로 옮기기엔 내공이 모자라서 ^ ^) 혈연관계 또는 가족이란 서로의 짐을 나눠가지며 살아가는 눈물겨운 존재기도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대신 감당해 줄 수 없는 짐들이 엄연히 있다. 그 삶의 짐이 당사자에게 있을 땐 그것이 온전히 그 삶의 상처가 되고, 실패가 되고, 궁극적으론 자산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누군가 대신 짊어져 버리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서로를 괴롭게 하는 짐구덩이에 그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선 내 부모로부터 받은 짐부터 내려놓고, 내가 아들딸에게 준 짐도 되찾으려 한다. 그리고 오로지 나만이 내 삶에서 지녀야 할, 결국엔 나를 성장시키고 깊어지게 할 나의 몫의 짐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려 한다. 때론 외롭고 쓸쓸할테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한 번씩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속을 혼자 걸을 때 왠지 외롭고 쓸쓸하지만 삶에 대한 투지가 마구 솟아나지 않던가. 끝없이 나를 성장시키는 나의 아이들이 자기 몫의 축복과 시련을 기꺼이 감당하며 삶의 한중간을 꿋꿋히 걸어 나가길 부모로서 바라고 또 바란다. 나또한 그럴 수 있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본다. 끝으로 씩씩한 의 부모님들도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면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내 삶의 스승인 아이들을 맑고 서늘한 눈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씜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

씩씩한 어린이집 7월 교육평가 · 8월 교육계획

정현주, 노승복, 박정애, 조윤정, 황태순, 김지영
(아침, 나비, 햇살, 체리, 벚꽃, 피터팬)

8월 교육계획

■ **이 달의 주제** : 즐겁고 건강한 여름 나기
■ **이 달의 세시와 절기** : 입추, 말복, 처서
■ **이 달의 노래** : 절기 노래, 참매미,
곤충을 잡으러 다니며

절기 노래(4절)
더위가고 가을 시작 입~추
더위처치 해버리자 처~서
이슬내려 가을 왔네 백~로
가을 한가운데 나눠 추~분

참매미
어린이 시, 백창우 개사. 곡
맴맴맴맴 맴맴맴맴
맴맴맴맴 맴맴맴맴
아침 햇살이 문에
발갛게 물들 무렵
참매미가 울지요.

맴맴맴맴 맴맴맴맴
맴맴맴맴 맴맴맴맴
참매미가 울지요.
참매미소리 듣고 있으면
정말 한여름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곤충을 잡으러 다니며
전래동요.편해문 옮김
개똥벌레 페페 개똥벌레 페페
테테 불켜라 테테 불켜라
사또 간다 길 닦아라
개똥벌레 똥똥 개똥벌레 똥똥
테테 불켜라 테테 불켜라
그리 가면 덥고 이리 오면 시원코

■ **교사회 일정**

출근 시간
07:30 벚꽃
08:30 햇살
08:40 나비
09:30 체리
10:00 피터팬 ,아침

교육 및 회의
7(화) 지역 대표자 모임
공공교 사무국 / 아침
17(금) 교사교육
(※5시부터 아마 부탁 드립니다.)
18(토) 비수도권 열린 강좌
(교육 실제 과정)
대구행복생협 교육관
(※텃밭교육은 조합원들도 수강 가능)
24(금) 교사 긴 회의
(※5시부터 아마 부탁 드립니다.)

휴가
9(목) - 나비(연차)

■ 전달사항

* 큰 세탁기는 걸레 세탁 전용입니다. 이불은 꼭 가정에서 세탁 해 주세요.
* 등원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9시 50분 등원 시간을 꼭 지켜 주세요.
수요일 긴 나들이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운동화, 바지-모기가 많고 슬리퍼형 고무신발은 잘 미끄러 집니다)
* 공공교 비수도권 열린 강좌(18일)- 텃밭교육 강의는 조합원들도 수강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 날이 더워 물놀이를 많이 합니다. 여벌옷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하원시 바구니 확인 바랍니다.
* 차량아마 요청 -13일 대구 미술관
21일 방짜 유기 박물관
30일 어린이 회관

※ 해당일에 2대씩 요청 합니다.

8월 일정

	월	화	수	목	금
1주			1 마실 -강유채네	2 물놀이 - 팔현 마을	3 요리 활동 (팥빙수, 샌드위치 만들기) 영화 보기
2주	6 차모둠 태권도 연못가	7 아라방-아이들 결정 마루방-산나들이 (자연물스케치하기) 가람방-요리활동 (팥빙수만들기) 근교 나들이 도담방-방학추억꺼리 그리기 **(입추, 말복)**	8 전체모둠 텃밭 가꾸기 긴 계단~연못가	9 대동 놀이 7세-선화통합활동 6세-요리활동 (빙수) 5세-요리활동(아이스크림 만들기) 후 근교 나들이 4세-아카시아 추장 꾸미기	10 안전교육 닫기모둠
3주	13 차모둠 태권도 도토리길	14 아라방- 아이들 결정 마루방-아마마실예정 가람방 - 대구미술관 도담방 - 양동이 물에 빨대 물고기소리 내기	15 광복절 (휴원)	16 대동놀이 7세-아이들 결정 6세-바닥분수 (신매광장) 5세-바닥분수공원 나들이 4세- 개구리 만들기	17 먹거리교육 닫기모둠
4주	20 차모둠 태권도 기차산 **김민소 생일**	21 아라방-아이들 결정 마 루 방 - 긴 나 들 이 예 정 (방짜유기박물관) 가람방-아이들 결정 도담방 -징검다리 보물 찾아오기	22 전체모둠 텃밭가꾸기 기차산~정상~꿀통 옆길 **이하람 생일**	23 대동놀이 7세-어린이 회관 6세-아마마실예정(물놀이) 5세-산 나들이 4세-잡지책 오려 우리동네 꾸미기 **(처서)**	24 기본 생활 교육 요리활동 닫기모둠 **송하선 생일(25)** **(칠석)**
5주	27 차모둠 태권도 산딸기 언덕	28 아라방 -아이들 결정 마루방-바닥분수\ (산 나들이) 가람방 -아이들 결정(또는 마실) 도담방-얼음 관찰하고 맛보기	29 전체모둠 텃밭가꾸기 (김장무, 배추 심기)	30 대동놀이 7세-아이들 결정 6세-긴산나들이 5세-어린이 회관 4세-OHP그림 햇빛에 비추기	31 닫기모둠 소방교육

7월 돌아보기

나들이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닿을 때마다 시원한 그늘이 생각나는 여름이라 교사들은 조금이라도 바람이 부는 장소로 나들이를 안내하지만, 애들은 계속 햇볕으로만 달려간다. 장마 때 내린 비 덕분에 냇가에 작은 폭포가 두 곳이나 형성되어 나뭇잎을 띄어 배경주를 하고 개구리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산딸기를 발견하면 따먹는다고 정신없고 아카시아 잎으로 수세기를 하고 파마하기에 열심이다. 연못가 나들이를 가게 되면 옆 잎을 따서 우산을 하려고 따달라고 하고 코스모스가 예쁘다고 꺾어달라 한다.

7월 3일 바람 불지 않는 더운 날씨에 헬스 산에서 기차 산을 지나 연못가로 돌아오는 긴 산 나들이에 모두가 힘들어했고 규언이가 울상이 되어 내게 말한다. “햇살 때문에 더워, 햇살은 태양이잖아.” 나중에 규언이는 시인이 되려나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다른 샘들도 놀라워했다.

매호 공원에서 매미 껍데기를 여러 개 주워 돋보기로 관찰하고 죽을 때까지 나무 위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는 매미의 흔적을 찾아 뛰어서 나뭇잎과 줄기에 붙어 있는 껍데기를 유심히 살펴보니 성충이 되어 껍질 속을 박차고 날아간 듯 등짝에는 막 바스러질 듯 구멍이 나 있었다. 신기한 목격은 작은 슬픔이 되기도 했었다. 도토리나무에 많이 붙어 있는 지네를 보고 “지네 아파트”라고 소리치는 애들을 볼 수 있었다.

초복 날 긴 나들이를 출발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긴급하게 교사들끼리 앞으로 진행할지 다시 돌아갈지 회의를 잠시 하면서 소나기를 한번 맞아보자는 각오로 계속 걸었더니 잠시 후 비가 그쳤다. 다행이기도 했지만 모처럼 비를 맞으면서 걸을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아쉬웠다. 긴 막대에 나뭇잎을 끼워 깃발이라고 제일 앞에 서는 시훈이와 현동이.

7월 24일 팔현마을로 전체 아동이 방별 차량 아마들의 도움을 받아 출발했지만, 현장에 도착하니 자체 물청소하는 날이라 폐장하여 할 수 없이 동구 신서동 쪽으로 방향을 바꿔 놀았다. 뒤따라 오던 도담방은 너무 덥고 그곳에는 시설 이용자들이 많아 혼잡할 것 같아 다시 터전으로 되돌아갔다. 나머지 3개 방은 주변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인근 학생들, 타 시설 어린이집 아이들, 우리 터전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복잡하게 놀았던 하루였다.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출발했지만, 워낙 폭염 더위라 오후에 간식 먹을 때 보니까 피부가 붉게 변해 있었고 샘들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애들은 너무 좋았다고 다시 가고 싶다고들 한다. 각 방 나들이를 모두 같은 날에 출발하니 나비샘이 많은 도시락을 준비하신다고 힘드셨을 것 같다. 차후에는 이런 점도 고려해서 방별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고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사전 답사를 먼저 가던지 전화 확인을 좀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선화/ 씩씩한 통합 활동

7월 5일

장마 때라 비가 좍좍 쏟아진다. 계획대로라면 바깥에서 따뜻한 햇볕 속에서 황토 염색을 하여 햇볕에 헹궈 널기를 해야 한다. 일정 수정 없이 염색하기로 하고 재료를 모

두 챙겨 놓고 순서도 다시 보고 선화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소금을 아이들과 나누어 담았다. 30g을 맞추기 위해 몇 번이나 이 컵에서 저 컵으로 부어 옮기다가 미세한 숫자의 차이는 손으로 조금씩 옮기면 되겠다는 합의에 도달했는지 손으로 덜어서 담는다. 그러고 몰두하는 동안 선화친구들 도착. 세 팀으로 나누어 앉아 과정을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시작. 소금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 황토의 감촉도 느껴보았다. 미리 흰색 티나 손수건을 챙겨 온 선화 친구들도 있었다. 옷에 튀면 잘 지워지지 않으니 조심하자는 얘기도 했지만, 승원이, 태훈이가 물을 튀어가며 하기 시작했고 같은 테이블에서 작업하던 연수가 얼굴에 튀자 속상해했다. 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 가르쳐 주자는 이야기에도 뾰루퉁하다. 아직은 그러한 돌발 행동이 이해할 수 없고 낯선가보다.

손수건이라 얇아서인지 15분정도 주물러도 색깔이 짙게 배인다. 시간이 조금 남아 무슨 놀이를 할까 하다가 7세들과 자주 하던 놀이 중 이불 깔아 놓고 그 위에 모두 올라가면 내가 주변을 빙빙 돌다가 이불 안의 아이를 끄집어내는 놀이를 하였다. 처음엔 내가 하다가 선화의 남자 선생님이 술래를 하니 아이들 더 악착같이 안나갈려고 힘을 모은다. 서로 잡아당기며 중간에서 주하가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을 담아두지 못해 아쉬울 정도이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을 기약하며 배웅을 했다.

7월 19일

목요일이 다가올수록 어린이회관 나들이가 걱정되었다. 더구나 가는 길만 차량 아마를 신청하고 오는 길은 아이들과 버스를 타고 와 보겠다고 나는 왜 무모하게 그랬는지....오전은 선화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먼저 도착하여 놀고 있으니 이내 노란 차가 도착하였다. 함께 하기에는 많지 않은 시간이라 꿈 누리관으로 갔다. 아이들이 너무 원했던 나들이여서인지 자꾸 뿔뿔이 흩어져서 관심 있는 것들만 하려고 해서 선화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초등학생들까지 단체로 관람을 와서 혹시나 안전사고나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오전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애들 머릿수 세느라..-

에너지관을 지나 100원 동전을 넣고 움직이는 놀잇감들에는 어찌나 서로들 돈을 넣어 달라고 그러는지...한번씩만 원하는 것들을 타고 두 번째 탈 때는 선화 친구들과 같이 탄 것에 한해서 태워주고 싶다고 했다. 의도적인 방법이라 마음이 불편했다. 타는 아이들도 있었고 지켜보는 아이들도 있었다. 1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그렇게 선화 친구들을 보내놓고 나는 13명들과 나의 불편함에 관해 이야기했다. “관심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온종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러 왔고, 다시 이곳에 올 수도 있다. 선화 친구들은 우리와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잠깐만 있다가 돌아간다. 그런데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하면 그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

입장 바꿔서 너는 나랑 놀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다른 거 한다고 너랑 안 놀아주면 기분이 어떻겠니?" 같이 있을 때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길 바랬다. 그것과 더불어 나 또한 걱정을 덜고 이곳에서 잘 놀 것이라 믿었던 처음의 결정을 다시 되새겼고 아이들을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전체 교육

기본생활교육 - 금요일 오전 열기 모둠 시간에 '종이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이 주로 1층에서 이면지와 갱지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의 정리정돈이나 자기가 만든 것과 그림의 보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꾸미기 하는 종이와 쓸 수 있는 종이와 쓸 수 없는 종이를 어떻게 구별해서 바구니에 나누어 담을지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자기가 애써 그린 그림은 자기의 파일꽂이에 잘 꽂아 두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와 없는 종이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뒷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생활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잘 인지되지 않을 때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먹거리교육 -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개인위생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라 아이들에게 식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식약청의 자료를 도움받아 손 씻기, 익혀서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의 내용을 담아 손 인형극으로 알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마무리에 귀에 익숙한 리듬으로 개사한 노래를 들려주고 같이 부르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우리 모두 다함께 손 씻기!
우리 모두 다함께 익히기!
우리 모두 다함께 물은 끓여 마셔요!
우리 모두 다함께 지켜요!

안전교육 - 아침 간식 먹기 전, 나들이 다녀온 후, 식사 전, 오후 간식 전, 바깥놀이 후, 화장실 다녀온 후 터전에서 아이들에게 손 씻기 시간을 갖는 때이다. 이외에도 손 씻기는 하루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아이들 손을 씻는 모습을 보면 모두 제각각이다. 왜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에 부연 설명을 들려주었다. 손을 깨끗이 씻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한 손을 씻을 때 수돗물 사용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방교육 - 한 달에 한 번 하는 대피훈련이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자기가 놀던 자리에서 대피를 잘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대피하기 전에 모둠을 하면서 불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집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이 놀라고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고 119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아이들과 119신고 노래를 불러보고 대피훈련도 해보

았다. 이제는 대피할 때 아이들이 빠른 판단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미끄럼틀로 대피하는 아이와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령별 활동

4세 - 도담방

장마 기간 때 내리는 많은 비 때문에 실내에서 활동했던 시간이 많았던 7월이다.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애들의 모습이다. 평소와 달리 책도 많이 읽고 여러 놀이를 바꿔가며 신 나게 뛰어 잘 논다. 1층에서 다 함께 모여 점심 먹을 때 잠시 에어컨과 선풍기를 작동했던 걸 제외하고는 방에서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었고 8월에는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더운 날씨 때문에 땀띠와 모기 물린 자국이 많아지고 얇은 긴 옷을 입혀야 덜 물릴 것 같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서연이가 자주 물리고 상처가 오래가며 지오는 기침하는 횟수가 늘었고 땀띠가 발생했으며 감기약을 복용하는 애들이 3명이었다.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태권무 체조에 소현이와 지오는 종종 따라 한다. 다른 방 언니와 형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 좀 더 익숙하게 따라 하고 싶어서 방에 와서도 연습하자고 한다.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 아침에 아마와 헤어질 때 힘들어 하면서 우는 아이는 없어졌다. 지오는 여전히 잘 먹고 소현이는 밥과 좋아하는 반찬 1개와 집중적으로 먹다가 마지막에 남은 밥만 먹게 된다. 서연이는 천천히 먹지만 끝까지 다 먹고 씹는 연습이 덜 됐는지 질긴 나물반찬과 고기가 나오면 안 먹을려고하고 잘 씹지 않는다. 영현이는 자주 국을 쏟지만 잘 먹는 편이고 유채는 다른 친구들 밥 먹는거 구경한다고 잘 안 먹고 웃는 시간이 더 많다. 텃밭에서 자주 나오는 상추쌈에 된장 찍어 즐겨 먹는 막둥이들.

가끔 지오는 고추 먹는 나를 보고 “안 매워”묻고는 자기도 먹어본다. 양치질 안하겠다고 우는 아이들은 없어졌고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혼자서 양치질도 잘해내고 하는 방법들도 익숙해져서 수월하게 지도를 해 주고 있다. 물놀이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슬리퍼를 신고 등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나들이 길에서는 자주 넘어져서 여전히 위험해 보인다. 낮잠시간에 쉽게 잠드는 아이는 서연이고 영현이와 유채는 옆에 나란히 누워 서로 웃고 논다고 늦게 잠들고 지오와 소현이는 여전히 안 잘려고 한다. 가족 영화인 “마음이 2”를 봤는데 만화에 익숙한 듯 집중을 잘 안했고 주인공인 강아지가 이쁘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 애들은 긴 끈에 인형을 매달아 끌고 다니면서 “강아지야 놀러가자”하며 다닌다. 장마가 계속 되면서 습도가 높아 산에는 모기들이 많아져서 정상까지 못가고 얼른 헬스산 중턱까지만 다녀온 적도 있었다. 예전 전반기와 달리 요즘 소현이가 놀이의 주도권을 잃어간다. 헬스기구를 서로 탈려고 줄서라 해도 지오와 영현이는 안 따라해서 속상해 하지만 유채와 서연이는 여전히 소현이를 잘 따른다. 최근 들어 수족구병에 대해 강조 되면서 손씻기와 이닦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다. 아이들에게 손씻기 방법을 알려준 후 평소보다 2배~3배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고 꼼꼼히 잘한다. 7월17일 소현엄마의 아마 활동 덕분에 월드컵경기장에 도시락을 준비하고 놀러갔다 올수 있었다. 비가 내려 스포츠기념관에서 월드컵 관련 전시물을 관람하고 야외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비둘기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떨어진 밥알을 줬더니 순식간에 다 먹어치운다. 방학 전에 물놀이를 한번 해야되겠다는 각오로 7월 24일 다른 방들이 모두 팔현마을로 간다고 해서 준서엄마의 차량아마 도움으로 따라 나섰다가 현장에 도착하니 물청소하는 임시폐장 안내문을 본 후 바로 터전으로 와서 큰 물통에 미끄럼틀까지 설치하고 놀았던 우리들만의 물놀이를 했던 오붓한 하루였다.

5세- 보석방

보석방은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산 나들이 위주로 다녔다. 무더운 여름이라 그늘과 산 바람이 살랑 살랑 부는 가까운 천을산이 아이들의 천국 인 듯 했다. 폭포길에 들어서자 짧은 다리로 오르락 내리락하며 물에 발도 담그고 낚시 놀이도 하며 '개구리 발견' 승우의 말에 쪼르르 몰리기도 하는 5세들. 매일이, 달달이 새로운 놀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 하루 일상에서 놀이를 만들고 또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5세들이다.

점심 시간은 여전히 전쟁이다. 반은 먹고 반은 흘리고, 한 아이가 하면 너도나도 따라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내는 5세다. 그러나 모두들 포크에서 벗어나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툰 아이도 있지만 하반기에 접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듯 하다.

지난 달과 큰 변화나 활동이 없어 이번 달 5세는 여기서 마무리 하려 한다.

6세- 상어방

상어방 모이는 날에는 간단한 요가로 몸 풀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다.

생각보다 몸이 유연한 지호와 윤서, 나비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다가 방구를 뽀옹~ 하고 뀌고 부터는 모든 동작을 대충하려는 규언이, 요가 동작이 제법 익숙한 영윤이, 눈썰미가 있어서 동작을 잘 따라하는 윤아와 하람이, 요가 할 때는 늘 혼자서 잘 뛰어다니는 준서, 몸 따라 마음 따라 문경이, 다른 아이들 요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무리로 스윽 들어와서 하면 누구보다 잘하는 도연이~ 이렇게 모두 모이면 모둠을 시작 한다.

아직은 다리 걸고 한발로만 뛰는 것이 힘이 들어 다리 걸지 않고 혼자서 깨끔발로 뛰는 별 따기 놀이를 자주 즐겨 한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준서네로 향했다. 마실 초대를 받고 아이들도 들뜬 발걸음으로 준서 뒤를 종종종~ 따라 갔다. 마실을 가더라도 주변산책이나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편인데 비가 오는 이유로 집에서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책을 보다가, 다툼도 벌이고, 또 의견을 맞추고, 조율하는 모습이 기특하다.^ ^

맛있는 수육과 콩나물밥을 만들어주셔서 먹는 우리도 즐거웠지만 초대해준 준서가 더 신나하는 모습이었고 준서와 준서 어머니의 배려에 모두가 유쾌한 시간이었다.

나들이를 떠나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주신다. 한 달 전부터 약속 했던 콩콩랜드~ 아이들의 이구동성~ "비오면 콩콩랜드 간다 그랬잖아~"

" 자~ 자~ 애들아, 콩콩랜드 문이 열려 있으면 가고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 그럼~ 그땐 우산 쓰고 산으로 가자!" 아이들이 먼저 대안을 내놓는다. ㅎㅎ

과연 문이 열렸을까? 아닐까? 설레이는 아이들 표정이 너무 재밌고 귀여웠다. 모퉁이를 돌아보니 열린 것도 같고 안 열린 것도 같은 콩콩랜드가 눈에 들어오자 마음이 급해진 아이들 중 영윤이와 윤서는 뛰기 시작한다. 반대편에서 문이 열린 걸 확인하자 환호와 함성~ 서로 얼싸안고 좋아라 뛰는 모습은 거의 이산가족 상봉의 한 장면이다. 콩콩랜드 주인이 바뀌셔서 주변과 안이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고, 아이들이 맘껏 뛰고 놀 수 있도록 환기와 통풍에 신경써주셔서 좋았다.

물놀이를 예정하고 하람이 어머니께서 마실 초대를 해주셨는데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도 아이들이 감기로 약을 먹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상어방도 규언이와 하람이, 문경이도 컨디션이 물놀이를 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다음으로 예정하고 대구 미술관으로 도시락을 싸서 긴 나들이를 다녀왔다.

나들이 전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관람할 때 우리가 지켜야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서 인지 미술관 안에서의 에티켓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다. 작품 중에는 유난히 꽃그림이 많았는데 지호랑 윤아가 너

무 좋아했다.

상여 나가는 그림을 보고서 영윤이는 “저 그림 속에 내가 있는 거 같아” 라고 하는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 뒤 규언이도 마음에 드는 그림만 보면 “ 내가 그림 속에 있는 거 같아” 고 해서 아이들이 모두 그 말을 하면서 작품 관람을 하고서 나오는데 도연이가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들었는지 “엄마한테 주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 아이들도 뭐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가 보다~~~

관람을 마치고 아래로 내려와서 흐르는 물에 발도 담그고 간단하게나마 물놀이를 즐겼다. 맛있는 점심도 먹고 준서 어머니께서 준비해 오신 간식도 맛있게 나누어 먹고 월드컵 경기장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돗자리 깔고 시원한 바람 온 몸으로 맞으며 몸 쉬기도 하고 풀밭을 쫓아다니며 방아깨비도 잡고 술래잡기도하고 아이들 곁에는 물이 필수~ 수돗가에서 잔잔히 물놀이도 즐기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돌아왔다. 차량아마에 동행아마까지 해주신 하람어머니, 준서어머니 감사합니다^^

7세 -태권 브이방

7월 초에는 장마로 긴 비가 내리더니-환주는 장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했다- 장마 후에는 햇볕이 따갑다. 이번 달은 선화통합을 하며 처음 시작한 황토 염색을 볕이 좋은 날은 계속 이어서 했었고 생일카드 만들기, 이마트에 약 사러 가기, 어린이회관가서 하루 종일 놀다왔다.

1. 나들이 길에서

길을 나서면 또 다른 흥미로운 것들이 눈에 띈다. 늘 지나치는 우리 동네이지만 자연은 그때 그때마다 다른 색깔을 하고 있고, 마실 나오시거나 물건을 파는 그네들도 매번 다르게 다가온다.

알락하늘소를 발견하고 처음엔 담아갈 통을 찾는다. 부러진 우산으로 데려갈까?

우산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손으로 잡으려고 시도도하고..그러다 “불쌍하다. 우리 집으로 가게 놔두자.”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나무 위에 다시 올려놓고, 잘 가나 지켜봐 준다.

앉은뱅이 놀이를 하며 신나게 뛰던 현민, 시훈이 어느샌가 동네 공원에서 바둑을 두시는 할아버지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다.

할아버지들도 가끔 고개를 들어 얘들이 우릴 보나? 하고 쳐다보신다.

동네 중학생 형들 야구하는데 빙 둘러서서 파울이니 안타니 하며 야구해설에 열을 올린다.

멀리 치는 공은 서로 달려가서 잡으려고 기를 쓴다. 공을 때리는 경쾌한 소리를 너무 좋아하던 태권V들.

2. 함께 놀고 싸우고 화해하고.

계단에서 이렇게 누워 깔깔 거리며 좋단다. 터전의 어느 곳 하나 아이들에게 쉽게 지나치는 법이 없다.

늘상 오르던 계단이 재미있는 놀이터로 변신.

7세들은 같은 천으로 염색을 두 번째하고 동생들은 처음하는 것이라 함께 빙 둘러 앉아 어떻게 조물락 거리는 것인지 몸으로 보여준다. 니는 아직 1000번도 더 주물럭 해야된다!!

살구 씨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 처음엔 손놀림도 익숙치 않고 하는 방법도 잘 몰랐다. 채원, 현민이는 나머지 연습까지 하며 실력향상에 불을 태우더니 반나절 만에 고수가 되었다.

3. 함께 노는 일상 속에서 아이들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관계 만들기, 상호작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한 감정들을 끝도 없이 이야기한다.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표현을 교사에게 함으로써 친구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방법의 하나로도 생각이 된다. 그리고 서로가 상황이 이해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깔깔 거리며 웃는다. 그런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며 아이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는 키, 몸무게, 모습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던 감정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올 때-생명과 사물을 바라보는- 아이의 성장에 놀라워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나의 모습도 반추해본다. 하반기에는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나갈까 기대도 되고 고민도 된다. 어쨌든 최선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내도록 곁에서 그림자처럼 잘 보아주는 것이겠지...여름방학 신나게 잘 보내~

요리활동과 식단

요리활동

7월 마지막 주 금요일(26일) 계획은 교사대회관계로 일정을 한주 당겨서 할까 생각했으나 모든 활동이 계획되어 있어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요리활동을 주방아마에게 인수인계!

항상 함께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랑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사대회를 마치고 터전에 잠시 들어서는데 화채용 과일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다.

세탁할 이불을 가지러 온 아마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등원 시간이 늦어지고, 나들이가 늦어지고, 점심 늦어지고, 낮잠이 늦어지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수박을 그냥 잘라서 주었다고 했다. 순간 '아,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싶었다. 아마들만이 터전생활을 하는 날이니 특정한 계획이 주어지지 않아도 아이들과 함께 잘 놀 수 있다는 것을 잠시 잊었다. 모든 것을 아마들에게 맡겨두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들 덕분에 교육을 무사히 잘 다녀왔고 터전이 아닌 곳에서도 공동육아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교육을 받으면서 새삼 자부심을 가졌다.

오전새참

아침등원부터 찌는 듯 한 무더워가 계속되어서 아이들이 찬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 과일, 미숫가루 등을 주지만 찬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가운데 그래도 따듯한 죽이 든든할 것 같아서 나들이 위해서 꼭 먹어야 한다고 다독이면서 식혀 먹이고 있다. 그 와중에도 죽을 좋아하면 꼭 두 세 번씩 먹는다. 너무나 귀엽다.

점심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 굵은 것은 나중에 반찬용으로 쓰고, 작은 것을 이용해 알 감자

조림을 만들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조림을 해도 껍질을 거북해 하지 않고 달달해서 좋아한다. 하지만 금방 수확한 감자도 푸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반찬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고추도 적은 양이지만 며칠을 따 모아서 상추랑 함께 주면 '나 고추 먹었다'고 자랑도 많이 한다. 가뭄에 자라지 않고 끝부분이 노랗게 말라 가는 부추 또한 며칠 비가 내리니 통통하게 잘 자라 주어 오징어랑 섞어 전도 부쳐 먹고 고기랑 먹으면 궁합도 잘 맞는다고 해서 겉절이도 해먹었다.

또 호박 넝쿨이 우거져 호박이 잘 보이지 않지만 군데군데 영글어져 있다. 쌤과 아이들이 발견해 따도 되는 거냐고 고함을 친다.

이런 날은 식단을 변경해서 다음날 바로 만들어 먹었다. 된장국에 들어간 호박의 단맛과 볶음에 들어간 호박의 구수한 맛을 보고 쌤들은 옛날에 먹던 그 맛이라고 한다. 가지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길어져 깜짝 놀라게 한다. 이럴 때도 가지반찬으로 메뉴 변경에 들어간다. 텃밭에서 수확한 토마토 등의 야채들은 싱싱하고 더 맛있다.

인기식단은 돈가스다!! 두툼한 고기 돈가스를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잘게 잘라준다.

야채가 듬뿍 들어간 소스를 먹어보고는 찬종이가 '정말 맛있어! 이소스 여기서 만든 거야? 어떻게 해??' 라고 질문한다. 그릇에 남은 소스까지 숟가락으로 소리 내어 긁어서 먹었다. 소스에 여러 가지 야채를 넣으니 야채 섭취 또한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

닭다리 조림 -나들이 다녀온 후, "와!! 닭다리다" 매우 신나한다. 데리야끼 소스(다시마물, 간장, 매실 술, 설탕, 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넣어 조린 간장)넣어 조린다. 연이어 잘 먹겠습니다는 말이 나올 정도, 반찬 그릇에 뜯어서 조금씩 먹는 아이도 있고 통째로 쥐고 먹는 아이들도 있다. 소스에 밥까지 깔끔하게 비벼서 먹었다.

오후새참

지난달에 고기만두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혼자 만들고 있는데 7세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우르르 몰려와서 자기들도 만들겠다며 일손을 거들었다. 모든 재료를 주방 밖으로 옮기고 둥글게 모여 앉아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매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 굳이 설명이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속을 채워가면서 조물조물 잘 만든다. 동생들에게 만두를 빚었다고 자랑도 하며 형답게 씩씩하게 동생들보다 더 많이 먹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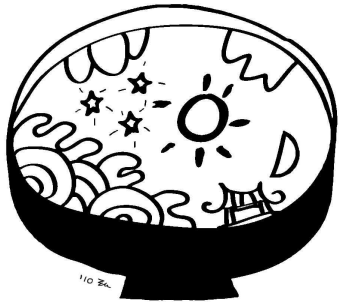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이번처럼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김치와 버섯 등 야채만 사용한 김치잡채도 비록 육류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깔끔한 맛에 좋아했다.

* 각 방 나들이로 도시락을 준비하며 메뉴 조절을 하다 보니 식단 변경이 잦아 8월부턴 긴 회의 평가 때 방별 교육계획을 미리 공유한 후 식단 변경 시에 참고할까 한다.

8월 식단에는 제철 채소, 야채인 토마토, 옥수수 및 신 김치를 이용해 더운 날씨에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단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려합니다.

※ 이번 달에는 감자, 복숭아, 참외, 삶은 계란, 오이, 자두, 위생장갑, 비닐 백 등 싱싱한 제철 음식과 주방물품를 부조 받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고 이용하겠습니다. ^.^ 씀



씩씩한 맛있는 8월 식단

	월	화	수	목	금
			1	2	3
오전간식					
점심	8/7입추.말복 8/23처서 8/27칠석	여	름 7/30~~8/5	방	학
오후간식					
	6	7	8	9	10
오전간식	누룽지탕	단호박찜	브로콜리죽	우유 .씨리얼	찐만두
점심	김치찌개 멸치볶음 김구이	콩나물냉국 감자채복음 호박새우젓볶음	김치볶음밥 맑은 된장국	팽이버섯된장국 어묵파프리카볶음 콩자반	황태국 가지볶음 두부조림
오후간식	찐옥수수	당근야채찐빵	감자전	수박	계란매실쥬스
	13	14	15	16	17
오전간식	야채계란말이	단호박스프	/	토스터감귤쨈	새우죽
점심	건새우근대된장국 삼치간장조림 오이무침	들깨배추국 알감자조림 미역줄기볶음	광복절 휴원	볶음밥 부추계란국	닭계장 도토리묵무침 진미볶음
오후간식	누룽지튀김	과일 요플레	/	김치전	떡김말이
	20	21	22	23	24
오전간식	김치주먹밥	쇠고기야채죽	빵.우유	잣죽	미숫가루,토마토
점심	키조개미역국 닭가슴살샐러드 김.양념장	청국장 찌개 풋배추겉절이 고등어 구이	불고기덮밥 미역오이냉국	순두부찌개 햄야채볶음 깻잎나물	들깨미역국 돈육수육 부추양파겉절이
오후간식	김민소생일떡	찐옥수수	이하람생일떡	찐감자.소금	송하선생일떡
	27	28	29	30	31
오전간식	양배추죽	양파감자스프	참치김밥	참치죽	수제비
점심	어묵무국 마른새우볶음 감자조림	우거지국 돈육가지고추장볶음 콩나물무침	새싹해초비빔밥	콩나물북어국 오징어,브로콜리 두부조림	쇠고기국 흰콩다시마조림 호박볶음
오후간식	핫케익.우유	김치스파케티	청포묵채국	두부.야채겉절이	토마토

* 식품원산지 - 쌀. 잡곡류.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생선 = 국산
김치(직접 담금) - 배추. 고추가루 = 국산
* 식품구매 및 터전사정에 따라 식단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

해바라기 방과후 7월 교육평가

김병현, 이윤희(해바라기 토토로, 장미)

7월 한 달 동안 포도의 안식월로 장미가 아이들과 함께 했다. 아이들은 역시 빠른 적응력으로 장미를 대했고 장미도 정신없는 가운데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장미의 성품이 부드러워 여자아이들이 무척 잘 따랐고 좋아했다. 남자아이들도 짓궂은 장난이나 함부로 대하는 일도 없었다.

7월 장마기간이 초반에 있어 비오는 일이 많았다. 아이들도 비가 오는 날이 많아져 터전에서 지내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노는 모습도 많이 달랐다. 특히 해균이의 유무에 따라 노는 패턴이 아주 달라졌다. 해균이가 있을 땐 아이들의 놀이가 야구나 경찰과 도둑, 잡기 놀이 등 몸을 많이 쓰며 노는 놀이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해균이가 없을 땐 다소 조용해 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몇몇 몸 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날 따라 조용해 지는 모습을 보곤 한다. 놀이의 이끔이가 달라져 분위기도 바뀌는 것이다.

여자아이들도 김희연의 유무에 따라 전체가 함께 노는냐, 아니면 몇몇이 뭉쳐 노느냐가 정해지기도 한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주도하는 역할이 남녀 사이에 큰아이들의 몫이라 다른 학년들이 영향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처음부터 큰아이들의 영향력이 커졌다기 보단 함께 지내면서 그 역할이 점점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풍물연습

7월에는 아이들과 풍물 연습을 했다. 두 번 정도 연습시간을 가졌는데 악기의 한계로 학년별로 나누어서 연습을 했다. 자진모리 기본 장단을 가지고 연습했다. “덩덩 덩 따 쿵따” 이 가락만을 가지고 계속 연습했는데 역시 학년별로 다른 습득 능력을 보여주었다.

일학년은 듣긴 들어보았으나 처음 접한 기연이 서준이가 있었고 두 가지 채를 잡는 방법을 처음부터 새롭게 가르쳤다. 나머지 아이들도 수아를 빼고는 다 고만고만한 솜씨를 가지고 있어 일단 구음부터 새롭게 가르쳤으나 그마저도 따라 하기 쉽지 않았다. 처음 보단 두 번째 연습에 더욱 나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재미있어하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이 학년은 나름 접해본 아이들도 있고 그냥 소리만 들은 아이도 있어 이 역시 처음부터 장구의 위치, 채 잡는 방법, 입으로 소리 내는 구음 등을 다시 가르쳤다. 강민이가 완전 처음이라 낯설어 하는 것이 보였고 나머지 아이들은 비록 채를 잘못 잡는 실수는 있었으나 가르치기는 수월했다. 일학년 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삼학년 이상부터 큰아이들은 장구를 다소 두드려본 아이들이 많아 금방 익혔다. 특히 해균이는 학교에서 풍물을 배운 입장이라 더욱 잘했다. 석영이도 처음 해본 것 치고는

나이가 있어 그런지 금방 따라왔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구음을 정확히 소리 내며 장구를 치고 있어 큰아이들은 기본 가락과 함께 변형가락까지도 진도가 나갔다.

풍물을 하는 시간을 각 학년별로 길게 가지진 않고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하는데 집중력있게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었다. 하반기에도 풍물을 월 2회 정도는 꾸준히 연습해서 아이들의 장구에 대한 이해를 키울 생각이다.

마당놀이

아이들이 마당놀이하면 진뺏기를 생각하는 것이 해바라기 방과 후 아이들이다. 진뺏기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을 요하는 놀이이기도 하고 긴장감을 한시라도 놓을 수 없는 놀이인데 더운 여름날 땡볕 아래에서 하기는 다소 무리인 놀이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당놀이 시간을 통해 실내나 마당에서 할 수 있는 팔자놀이를 했다. 물론 그전에 사방치기와 비석치기가 아이들 사이에 자유롭게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팔자놀이를 마루에 그리고 토토로가 술래가 되어 아이들과 놀았다.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저학년을 중심으로 토토로와 열심히 놀고 있으니 하나 둘 끼워달라고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많이 과격하지 않게 하고 정확한 심판을 공정하게 봐주니 아이들이 신이 났다. 평소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팔자 놀이에서 만큼은 몸을 열심히 움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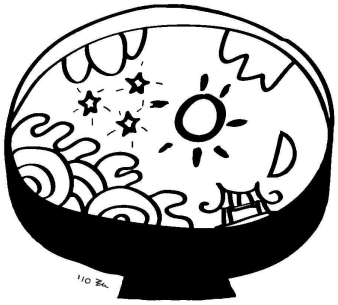
이렇게 놀이가 한번 토토로랑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부턴 아이들끼리 자유롭게 놀이가 수시로 이루어진다. 물론 고산초가기를 갈망하는 아이들은 고산초 농구장에서 벌어지는 진뺏기 놀이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에는 변함이 없다.

토비와 토로리

토비는 방과후에 온지 이제 일 년을 훌쩍 넘겨 이년을 맞이한 토끼이다. 그동안 많이 외로워하고 혼자 아이들의 보살핌인지 괴롭힘 인지 모를 관심을 받아왔다. 7월달에 찬우네에서 얻어 온 생후 3개월 된 토끼가 토비와 같이 살게 되었다. 이 토로리는 그냥 야생 토끼의 새끼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적응이 안 된 토끼라 우리 안에만 있어야 했다. 그에 반해 토비는 거의 강아지급 토끼라서 방과후에 그 열린 터전을 벗어나지 않는다. 애완 토끼로 커 왔던 전력이 있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주변을 맴도는 아이이다.

둘이 처음 만난 날은 토비의 무차별 대시에 토로리가 아주 힘겨워 했다. 수컷인 토비는 그동안 다른 토끼를 만나지 못해 몹시 외로운 상황이라 토로리를 암컷으로 오인해서 한시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만 하루가 지나서야 토로리도 수컷인 것을 인지하고 이후부터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

7월말 방학일 때 방과후 터전을 들렀는데 토끼 두 마리가 없어졌다. 누군가 토끼들을 구경하고 풀어준 것이다. 저녁 무렵에 발견한 상황이라 도저히 토끼들을 찾을 수 없었다. 밤중에 터전을 한참 찾았는데 토비는 발견을 했지만 토로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잃어버린 것이다. 누군가 구경을 하고 묶어 놓았던 줄을 풀어버리곤 제대로 해 놓지 않은 결과였다. 7월 한 달가량을 함께 지내는 토로리가 부디 천을산에 가서 잘 정착하길 바라면서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씜



해바라기 맛있는 8월 식단

	월	화	수	목	금
			1	2	3
점심			여	름 방	학
간식					
	6	7	8	9	10
점심	배추된장국 김구이 계란찜	북어국 고등어조림 콩나물무침	짜장밥 계란국 단무지	재첩국 두부조림 오이쌈장	김치찌개 어묵볶음 양배추쌈
간식	떡볶이	닭백숙	샌드위치	요플레 빵	옥수수
	13	14	15	16	17
점심	홍합미역국 감자햄볶음 돈메추리알조림	순두부찌개 삼치구이 가지나물	광복절	참치국 진미무침 숙주나물무침	김치햄볶음밥 계란후라이 오이냉국
간식	잔치국수	두부김치		멸치주먹밥	프렌치토스트
	20	21	22	23	24
점심	소고기무국 멸치볶음 계란말이	무국 돼지불고기 야채쌈	콩나물국 돈가스 야채샐러드	호박된장국 오징어볶음 버섯볶음	
간식	스파게티	궁중떡볶이	삼각김밥	라면	김채환생일
	27	28	29	30	31
점심					
간식	핫케익	또띠아피자			

* 식품원산지 - 쌀. 잡곡류.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생선 = 국산
김치(직접 담금) - 배추. 고추가루 = 국산
* 식품구매 및 터전사정에 따라 식단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씩씩한 터전 소식

박순희(씩씩한 오은준엄마)

1. 조합원교육 일명 문화교실(?)

7월 3일 첫 번째(?) 조합원 교육이 있었습니다.(사실 터전살이와 현장체험이 조합원교육의 일환이었으니 두 번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해왔던 강사초대와 강연이 아닌 단체 영화 관람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조합원교육의 저조한 참석율의 큰 문제였던 아이들을 선생님들께서 교육이 끝날 때까지 봐주시기로 하시어 역대 조합원교육중 가장 높은 참석율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일명 "안자는 터전살이"를 해서 좋았고 아마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에 집중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영화는 "두개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9년 1월에 있었던 용산참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내용이니 만큼 결코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지만 영화가 끝나고 감독과의 대화시간과 해바라기에서의 뒷풀이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회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조합원 교육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들 다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론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2. 한류열풍을 능가하는 마실열풍

그동안 다소 뜸했던 마실이 6월을 지나 7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괘도에 오르며 마실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가구는 이틀에 한번 꼴로 씩씩이들을 초대하고 있고 모 어린이는 마실이 겹치지 않게 스케줄관리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마실 열풍의 핵은 신규이신 하람네와 준서네이신데 이분들은 아마활동에 있어서도 크나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 선배 조합원들을 부끄럽게 하는 훌륭하신 신규조합원이십니다. 이 마실 열풍이 8월에도 쭈욱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 또 하나의 열풍, 야구열풍!!

7세 남자아이들을 주축으로 야구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광개토대왕"놀이와 전쟁놀이에 빠져 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야구공과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야구 연습을 하고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구경기장에 가기를 소망하야 아마들이 힘들게 표를 구하고 야구중계를 듣기 위해 라디오를 애용하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이 열풍은 7세를 지나 6세와 5세 아이들에게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야구장을 몇 번 다녀온 5세의 모어린이는 외야석이 아닌 치어리더 언니들이 있는 3루관중석에 가기를 요청하였습니다.(역시나 남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모씨의 아들 모환주군이 야구에 탁월한 실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머지않은 미래에 씩씩한 출신의 프로야구선

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4. 또래방 이야기

매주 목요일은 또래방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달 7세 아이들은 선화어린이집과 통합 활동으로 어린이 회관을 다녀왔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의 예쁜 마음도 자라 선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6세 아이들은 늘 목요일이었으면 좋겠다고 한답니다. 형님과 동생들에 다소 치이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또래끼리 만나는 날이면 너무나 잘 지낸다고 합니다. 아마들의 만족도도 커서 또래모임을 2번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5세 아이들은 숫자도 많고 말도 많아서 초반에 피터팬이 힘들어 하셨으나 요즘은 아이들끼리 활동도 잘하고 선생님의 지시도 잘 따라준다고 합니다.

4세 막내들은 햇살과 지오의 사랑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일한 남자아이인 지오는 다른 여자 친구들에게 "오빠가 도와줄까"라는 멘트를 자주 날린다고 합니다. 최근 씩씩한의 공식 귀염둥이인 유채가 아파서 등원하지 못한 날 월드컵 경기장으로 긴나들이를 갔는데, 유채의 빈자리를 모어린이가 떡하니 차지하고 도담방의 뉴페이스로 등극했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6세 지호의 동생인 도은이랍니다. 엄마 따라 갔다가 도담방 아이들과 잘 놀고 유채 몫의 도시락까지 먹고 왔답니다. 벌써 내년 막내방이 기대됩니다.

5. 나들이 이야기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7월에도 우리 씩씩이들은 매일매일 나들이를 갑니다. 오전에도 기온이 높지만 빠지지 않고 나들이를 간답니다. 특히 수요일은 전체 산나들이를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숲 온도가 다소 낮다고는 하나 이 뜨거운 여름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 정상을 향해 갑니다. 말로는 힘들다 어쩌다 하지만 정상에 가서도 뛰어 노는 우리 씩씩이들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도 씩씩이들은 어김없이 산정상을 향해 출발! 무진장 더운 날씨여서 아이들도 지쳤는지 규언이가 "샘들이 우릴 일부러 힘들게 해"라고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비샘 "그래 샘들이 융통성도 없이 이런 날 꼭 산정산까지 가야되나?"라고 하시자 우리의 샘들 "그래도 가야되요. 우리 애들은 숲으로 가야되요."라고 하셨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요?

(사실 우리 씩씩이들은 체력이 너무 좋아 이정도로 활동 해줘야 낮잠도 잘 자고 오후활동도 원활하지요.^ ^)

6. 물놀이 이야기

이 여름의 엄청난 열기를 울 씩씩이들은 물놀이로 해결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후활동시간 터전마당에 어김없이 큰 고무대야 두 개가 놓여져 있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나뉘어 들어 앉아 있습니다. 물도 아이들 무릎을 넘어가지도 못하건만 아이들은 행복한 표정입니다. 가끔 서로의 통속에서 물을 가져갔네 어쩌네 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그게 또 아이들 방식의 놀이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감질맛나게 하던 물놀이를 드디어 길게 다녀왔습니다.

맨 처음엔 가까운 팔현 마을로 계획했었으나 수리공사관계로 운영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장소를 급선회 동호지구 쪽 물놀이터로 갔습니다. 어린 도담방은 터전을 지키며 고무대야 수영장을 맘껏 즐겼답니다. 동호지구의 물놀이터에서 씩씩이들은 얼굴이 빨갛다 못해 까맣게 될 때까지 자알 놀았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이동이어서 샘들과 차량 아마, 동행아마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놀이터의 기억이 좋았는지 아이들은 집으로 가서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름이 다가기 전에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7. 들살이 답사이야기

올해 조합원 들살이가 9월 초로 예정되면서 이사진들의 장소물색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후보에 오른 대여섯곳의 답사가 주말마다 있었고 홈피 공지등을 통해 여러 가구들이 답사길에 함께 했습니다. 답사를 핑계(?)로 모처럼의 야유회 기분도 내고 또 왜 매년 같은 곳으로 들살이를 갈 수 밖에 없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혹여 이번에도 같은 곳을 가게 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아주시길...(제가 꼭 이사진들의 대변인 같기는 하나 답사를 따라가 보니 고생을 많이 하시더이다.^ ^ 특히 우리 두 운영이사님들, 훌륭하십니다!!!)

군위, 밀양, 청도 ,안동, 의성등등 그 중에서 어디로 들살이를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여름아 빨리 지나가라!! 시원한 가을 들살이가게~~~

8. 여름교사대화와 여름방학

지난 26일, 27일 샘들은 매년 있는 여름교사대회를 떠나셨고 아이들은 그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1주일간의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샘들이 안 계신 26일부터 방학이라고 봐야 하겠죠) 아마들이 대거 투입 이틀 동안 샘들의 빈자리를 채웠고 방학 동안도 마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몇 번 하진 않았지만 교육아마를 할 때마다 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새삼 느낍니다. 우리 씩씩이들은 도대체 뭘 먹어서 이렇게 기운이 넘쳐나는 걸까요?

교사대회를 가신 울 샘들은 장기자랑으로 춤을 준비하셨는지 몰래 연습하시는 걸 모 아마가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들살이때 보여달라고 졸라봐야겠습니다.

샘들이 얼른 재충전하시고 방학도 얼른 끝나기를 기다리며 더위에 지친 은준 엄마의 터전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씜

해바라기 터전 소식

최훈태(최문영.영윤 아빠)

1. 해바라기터전에 '장미'꽃이 피었어요.

포도선생님의 안식월에 맞춰 해바라기터전에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장미꽃이냐고요? 그럼요! 아니 아니 그 장미보다 몇 배나 곱고 고마운 장미였지요.

포도샘의 부재를 걱정하며 대체교사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이사회의 노력의 결실로 어느 날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해바라기 임시교사를 해주셨던 갈매기 기억하시죠? 그 갈매기의 추천으로 영남대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어여쁜 장미선생님이 해바라기 개구쟁이들과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포도샘의 빈자리를 차분하게 잘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토토로선생님의 도움이 컸겠지요. 더위가 한창이던 날 더위에 얼굴이 벌겋게 익고 땀이 삐질삐질나던 날이었는데 아이 몇몇과 사방치기, 알까기에 여념 없던 장미모습이 떠오르네요.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아이들과 잘 생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장미!

2. 포도선생님 드디어 사위얻다!

'내 이참에 기필고 사위를 얻고 말겠다' 단언하시고 떠나신 포도샘이 7월22일 드디어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가진 멋진 사위를 떡하니 맞으셨습니다. 그날 예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의 부러움이 한없이 높았다고 하더군요. 포도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식장표정1.)- 그날 식장을 찾은 아이들, 아마들, 선생님들이 포도를 찾아 한참동안 헤맸다는 후문과 미용실원장선생님이 신부보다 어머니단장에 더더욱 용왕매진하셨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이는 포도샘이 돌아오시면 확인해보시라!

(예식장표정2)- 신부대기실을 들렀던 엄마 조합원들이 '우와 신부가 진~짜 예쁘다. 진짜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를 연발했었다는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아빠들 앞에서 어인 망발이었던가요. 모모엄마는 '저 나이 때 안 예쁜 사람이 어디있노?' 라고 보탰지만 글쎄요? 글쎄욧!!

(예식장표정3)- 신부측 손님은 왼쪽자리에 신랑측 손님은 오른쪽에 앉으세요!

그날 많은 우리조합식구들이 신부측을 축하함과 동시에 신랑측 자리를 빛내는 일거양득의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앉을 자리 위치를 몰랐든동 알고도 그랬든동간에 애써 쾌거라 여깁시다요. (웬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주니 신랑측에선 많이 고마웠을 겁니다.)

신랑신부가 양가부모님께 감사의 절을 올릴 때 눈물을 훔치시던 포도의 모습에 보고있던 저도 뭉클해지더군요. 잘 키우셨을 것이고 앞으로 잘 살겁니다. 암요.

3. 토로리 해바리기 등원하다.

토로리가 해바라기에 등원해 토리의 단짝친구가 되었습니다.

찬우가 데려와서 야생의 습성을 간직한 저돌적인 아이라고 소개했다는군요. 등원첫날 해바라기 마당의 터줏대감 토리와 서로 탐색,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는 이튿날 바로 단짝친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토로리의 등장으로 아이들의 토끼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지게 되었고, 해터전 토끼장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동네주민들에게 명소(?)가 되었다네요. 더불어 토로리가 온 이후로 토리의 가출습관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산초등학교 등교시간에 아이들과 토끼 잡는다고 한 소동이 벌어지거나, 비오는 밤 가출한 토리를 걱정하는 일은 아련해지겠습니다. 친구가 생긴다는 건 모든 생물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네요.

우리 다짐합시다. '배고파서 동반 가출하는 어이없는 일이 없게 밥주는 것 잊지말자!' (쉬는 날에도 토끼 밥 신경쓰시는 토토로샘 감사합니다. 조합원들 당번 정할까요?)

4. 석영아빠 훈제요리집 오픈(?)

지지난달이었던가요? 세아이의 아빠 모모씨의 훈제요리와 마실 분위기에 매료된 석영아빠의 극찬의 글이 있었지요. 그 맛과 그 분위기를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석영아빠가 '그래 결심했어!'하고 대단한 일을 저지르셨답니다. 경산 집 앞마당에 벽돌과 자연황토로 멋진 훈제화덕을 제작했다는군요. 동네 뒷산의 황토를 손수 퍼와서 정성껏 개고 발라서 만들었고, 행여나 비 맞을까 우산도 씌워 주고하며 애지중지 완성했다고 하네요. 화덕에 사랑을 빼앗긴 석영엄마의 한숨이 조용한 동네를 음산하게 휘감아 돌아 동네 사람들이 한때 저녁 마실을 자제했다는 설이 있네요. 아무튼 바로 제작기념 마실을 했는데 마실 간 대여섯집 아마들의 칭송이 대

단했답니다. 또한 아이들이 막 뛰어도 아랫집 할매 걱정없이 뛰어놀 수 있는 집환경이 아이들에겐 환상적이었다네요. 곧 시지로 이사를 하신다니, 조합원들은 그전에 우째 우째 구실을 만들고 엮어서 꼭! 반드시! 석영네 훈제요리집으로 마실 가시기 바랍니다. (홈피에 훈제화덕의 위용을 사진으로 보여주시길 석영네!!)

5. 애들이 웬!? '팔자'타령

우리 해바라기아이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하고 있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어느 날 터전 마루에 '8'자 그림이 그려진 후 일어난 현상이라는데요. 아이들이 8자놀이 삼매경에 빠져있는 시추에이션이라는 군요. 놀이규칙이 간단해서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할 것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 합니다. 요것이 묘하게 확 잡아당기는 매력이 있는 놀이라는 군요. 역시나 '잡기놀이'류는 아이들을 정신없이 열광케 합니다.

요즘 시지골에서는 '두두두두' 준마(駿馬)들이 떼를 지어 달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 지역 경마애호가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는 풍문이.....ㅎㅎ.

해바라기 아이들과 서먹해서 불편한 아마분들, 애들과 막 어울리며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일단 해바라기 마루방에서 가서 '팔자놀이하자~아'하고 외치면 됩니다. 참 쉽죠잉?! 그 누구건 놀이친구로 같이 신나게 놀면 친해집니다. 또 하나의 귀띔 '너 강제리턴할 수 있어? 우와 연습했어?' 이 한마디면 요요가진 아이들과의 대화트기에 성공할 것이고, '토리랑 대화 해봤어' 이것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항상 아이들의 관심을 쫓아야하고 그 안에 같이 있어야 존재를 인정받겠죠? 이 기회에 아마들도 '아이고 내 팔자야'하고 팔자타령 해봅시다.

2012 여름 교사대회 후기

자부심을 느끼게 한 시간들

김지영(씩씩한 피터팬)

한송이 들꽃은 혼자서 피지 않는다
"듣고, 보고, 배우고, 나누며 함께 피는 들꽃으로"

2박3일 동안 경기도 이천소재 덕평 수련원에서 전국에 있는 공동육아 교사들이 모두 모여 전체 강연과 나눔 마당, 대동놀이, 모둠 토론 등 뜻 깊고 알찬 시간을 보내고 왔다.

첫째 날, "소통하며 산다는 것"이라는 작은 주제 아래 대강당에 모여 현장학교 수료식을 시작으로 여는 마당을 시작했다. 각 지역별로 인사를 하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터전들도 단상으로 올라가 인사를 했다. 전국에 공동 육아 교사가 약 380여명으로 앞으로는 그 수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생각보다 많은 교사 분들에 놀랍고, 또 한 터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랐다. 처음 참여하는 행사로서 어리둥절하기도, 앞으로의 2박3일이 기대도 되고 공동육아 교사로서 뿌듯하기도 했다.

그 다음 순서로 "협동조합과 공동육아의 변화"에 대해 첫 번째 전체 강연이 시작되었다. 영상 자료를 함께 시청하며 이탈리아는 시민의 60% 이상이 공동체 조합으로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게 두 시간의 강연을 끝으로 저녁을 먹고 7시 반부터 놀이마당과 대동놀이가 시작되었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해가 지고 어둑어둑 달이 뜨고 달빛 아래 길놀이를 하는 무리를 보니 무어라 형용할 수 없지만 가슴 벅참을 느꼈다. 강강술래, 청어 엮기, 덕석 말이, 손치기 발치기, 남생이 놀이 등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서로 모르는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큰 원을 만들어 달리고 또 달리고 흐르는 땀을 닦으며 방방곳곳에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느끼고 그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 오전, "나누고 참여하는 우리"라는 작은 주제로 교사회 리더십에 대한 모둠 토론이 시작되었다.

교사들마다 원하는 파트를 사전에 선택을 해서 각 방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즐기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놀이와 쉼"에 대해 모둠 토론을 했다.

우리 터전에서(교사회 중심) 잘 되고 있는 놀이나 자랑할 만한 것들(장점)과 앞으로 했으면 하는 놀이나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단점)을 말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교사회 내에

서 고민하는 것들을 다른 터전에서도 똑같이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얻고 풀어내는 시간이라 참 좋았다.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나눔 및 교육마당이 시작되었다. 각 지역별로 자리를 잡고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팔며 장터를 방불케 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악세서리와 손수 만든 수제품, 옷 가지, 생활용품 등을 내놓았다. 각 터전 교사들이 각자 3개 이상의 물품들을 챙겨와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나누는 의미를 한 번 더 챙겨보는 자리였다. 악세서리의 대부분은 체리 선생님의 것으로 첫째 날 우리끼리 찜~!찜~! 하며 당일 날도 인기가 좋아 다 팔았다. 그 날 나비는 주렁주렁 반짝반짝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나비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무척 재미있었다. 수익금의 10%는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대구 지역 교사회는 20% 이상을 기부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

그리고 이어진 교육마당, 이 또한 각자 원하는 교육을 사전에 선택을 해서 각 방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즐거운 음악 오르프”를 선택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해서 무척 아쉬웠다. 고민 고민 끝에 선택한 오르프!

아이들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라 터전에 돌아가서 함께 하고 싶다.

우리 터전이 신규 교사가 많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며 자신의 교육 시간을 우리 터전 교사에게 내어 주고 끝까지 혼자서 장터를 마무리하며 지역 교사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딱지와 구슬의 핑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4시 40분부터 두 번째 전체 강연 “소통, 마을, 그리고 단골경제”라는 주제로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님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강연 중간 중간에 영상 자료를 보며 많이 웃기도 하고 잠도 깨고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저녁을 먹고 7시 반부터 두근두근! 나는 지역스타다! 각 지역별 장기자랑 시간이었다.

대구지역은 이태원 프리덤을 공동육아 프리덤으로 개사하기로 하여 여러 차례 4개 터전이 회의를 거치며 각 터전 별 개사 내용을 취합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며 진행 되었다. 각 터전 별로 가사에 맞는 동영상 촬영하고 취합하여 편집하고 안무도 연습하며 알차게 준비했다. 교사대회에서 전체 교사회가 만나 두어 시간 만에 전체 안무와 노래를 맞추는 작업까지 모두의 협력과 순발력을 발휘하는 등 각 터전 선생님들의 내공을 경험 할 수 있는 시간 이었다.

대구지역 교사회 모두의 마음을 모아가기 위해 느리지만 함께 가고 완성도에 아쉬움이 있을 지라도 모두의 의견을 배려하고 조율 해 가야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친정에서 밤 새 땀 흘리며 춤 연습하고 동영상 만드느라 고생한 벚꽃 선생님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짝짝짝!!!

옆에서 지켜보며 공동육아 교사들은 정말 못 하는게 없구나~대단하고 모두 고마움을 느꼈다. 이왕 하는 거 1등 하자는 각오로 다들 열심히 흔들어 주셨다^ ^

첫 번째 순서였던 대구지역은 알록달록 펑키 가발에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한 무늬의 몸빼바지를 입고 찌르고 흔들고 신나는 무대였다.

아마 들살이에서 그 때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참가한 15개 팀 모두에게 상이 주어졌다. 대구 지역은 "준비 철저 상"을 받았다. 다른 지역도 와~! 정말 대단한 무대였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안무를 맞췄을까..?할 만큼 열정들이 대단했다.

셋째 날, "새로운 시작, 너와 함께!"라는 작은 주제로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 준비팀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 함께 보며 2박3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옆에 있는 동료교사에게 "고맙습니다"하며 토닥토닥 안아주기도 하고 짧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눈으로 많이 담고 가슴으로 많이 느끼며 공동육아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교사대회를 다녀올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아마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씜

제 동생 좀 잡아가세요

한승오(고산중 1학년, 해바라기 한서준 형)

〈특집〉 이글은 세하다안차람 엄마가 근무하시는 중학교의 국어 글쓰기 시간에 제출된 글입니다. 지금 해바라기에 다니고 있는 서준이 형이 쓴 글입니다.

글을 실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신 세하다안차람 엄마와 기꺼이 소식지에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승오서준이 엄마에게 감사드립니다.

출근하느라 마음이 바쁜 아침, 막내 차람이(5세) 손을 잡아끌고 걷노라면, 맞은편에서는 승오(고산중 1학년)가 서준이(고산초 1학년) 손을 잡아끌고 걸어옵니다. 서준이는 몸을 뒤로 빼고 있고, 승오만 급합니다. 승오는 서준이를 고산초등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고산중학교로 등교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선생과 학생의 신분을 벗고,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고, 승오는 단지 서준이보다 몇 해 더 일찍 태어난 형일 뿐입니다.

국어 수업 중에 소개하는 글쓰기를 했습니다. 승오도 글을 썼습니다. 내용도, 구성도, 표현도 엉성하지만 동생을 위하는 형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지는, 매일 아침 서준이 손을 잡고 급히 걸어가는 승오의 모습이 겹쳐지는 따뜻한 글이라 이 곳에 소개합니다.

제 동생 좀 잡아가세요

제 동생의 이름은 서준입니다. 법을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법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보다 6살 많은 나를 두들겨 패는 아이에요. 그러니 나이는 8살이죠. 그런데 체격은 벌써 제 3학년 때 키랑 맞먹어요. 좀 더 크면 저를 더 팰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를 할게요. 제 동생이 좋아하는 것은 레고 만들기인데, 14살짜리가 만드는 것을 만들어요. 하지만 항상 어질러놓아서 정리하는 제가 힘들어요. 동생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저랑 다르게 운동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둘이서 놀기 힘들답니다. 하지만 요즘 친구들과 놀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에 저녁에 같이 줄넘기를 한답니다.

서준이는 공부할 때는 정말 귀여워요. 하지만 제가 데리고 집에 갈 때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그래도 귀여울 땐 너무 귀여워요. 서준이의 장래희망은 경찰관이에요. 아직은 꿈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어리니까요.

이제는 동생에게 제가 바라는 것을 적고 싶어요. 서준아,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지금은 많이 놀고, 많이 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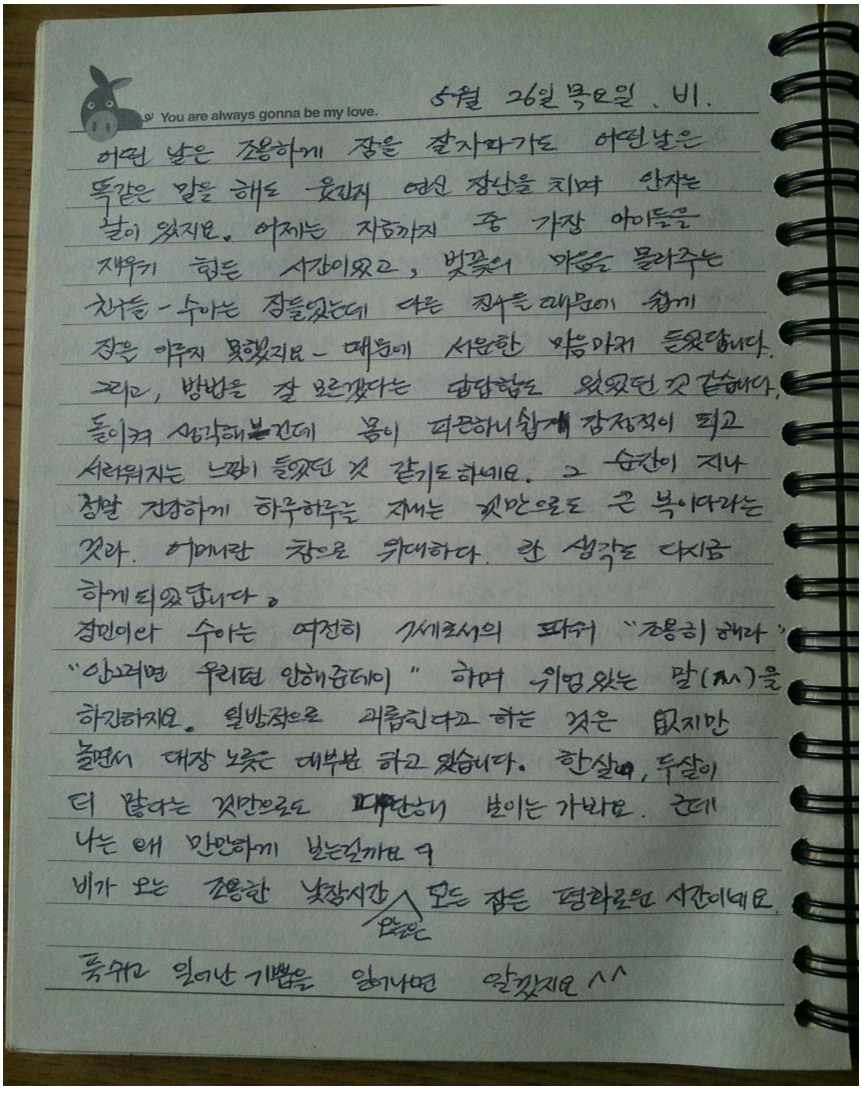
지금까지 제 동생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도 제목처럼 잡아가진 마세요. 저에게는 소중한 동생이니까요.

날적이 톺아보기 (톺아보기란 구석 구석 꼼꼼이 살펴보기' 라는 우리말)

사랑을 받아가며 서서히 닮아갈 꺼예요

황태순(벚꽃), 이정연(해바라기 정해균 정수아엄마)

※ 7월호부터 새로 생긴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아마들의 날적이 중 매달 한편씩 실을 예정이며, 터전 선생님의 추천 또는 본인이 신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내용 이나 형식은 자유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1. 5. 29. 일. Date.

벚꽃선생님이 제비꽃아이들 힘들어서 우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럴 때가 있는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교실에서 수업하다 아이들 앞에서 울적이 두번이나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는데 눈물이 난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는 무력감과 고립한 서러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후회되진 않아요. 제 감정에 솔직했고 제 마음이 전해져서인지 아이들도 점점 나아졌다고 생각되거든요.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분명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서서히 닮아갈거예요.

주말에, 7세 가족들끼리 캠핑을 갔어요. 재작년 5세일때 갈은 밤을 해보고 올해 처음 모였어요. 2사이 빠진 아이가 여럿 되네요. 결국 공동육아 대다수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한 가족들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지웅이네를 빼면 4.5.6년씩 된 고참조합원들입니다. 공동육아 안에서 여러해 보내면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designed and produced by PAPIER co.,Ltd.

아이를 생각하는게 어느정도 익숙해진 사람들이고 전부 둘째들이라 내버려두어도 잘 자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에 있어 여유가 있는 편이라 연령별모임을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휘전에서도 예년에 비해 이번 7세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저희들끼리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자는 의견이 모아졌지요.

간밤 봄무공원에서의 시간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7세들은 저희들끼리 잘 놀고 따라온 오빠, 형들은 또 잘 어울려 놀고. 동생이라곤 차람이밖에 없어 차람이는 여운들라 놀고.

지난주 해바라기 교육평가나 열린마루 후 뒷풀이 자리에서도 느꼈지만 함께한 시간이 긴 그들라 같이 있으면 정말 편안함을 느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생각이 달라 싫지 않고 이해가 돼요. 세월의 힘이겠지요. 다른 볼일이 있어 오늘 낮에 합류한 지웅이네라 더 놀다가 수아아빠는 야근을 해야해서 우리 가족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고 나서 또 그 아이도 공동육아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일 휘전가면 장민이랑 수아가 또 신나서 재잘 거리겠죠.

편집후기

오현석 [오은준아빠]

" 더운 방학기간 몸 건강히 정신은 더욱 건강히 견디시길 바라며 ... 열대야에 너무 힘든 아이들 화이팅!!

이옥희 [김지호엄마]

" 소식지 편집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8월달 소식지를 내고 있네요~~~ 월말만 되면 은근히 하는 일 없이 부담되는 소식지...

이번 8월호는 휴가나 터전 방학 중에 편집을 하게 되니 소위분들이 조금은 더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암튼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구요~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김덕춘 [최재욱엄마]

이런 저런 할 일들로 주말이라도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갈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네요. 그러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좋은 곳을 개척하였습니다. 남편, 어머니는 휴식과 TV시청, 아이들은 물놀이, 나는 소식지 편집 어디냐고요? ^^ 그 이름도 유명한 찜. 질. 방.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두들 더운 여름 맛난 거 잘 챙겨드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날 되시길...

신미정 [김동현엄마]

"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생각하며 더위를 이겨 보지만 아무래도 올 여름은 정말 덥네요. 다음 소식지 나올 즈음이면 아침 저녁으로 슬슬 찬바람이 불테죠^^ 즐거운 여름, 반가운 가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황성원 [이루다엄마]

" 방학이라 아이들과 더위에 지칠법한데..... 또 다른 소식지 탄생을 위해 애쓰신 홍보소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ㅎㅎ 고생하셨어요~"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제91호

- **발행일** 2012년 8월 1일
-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 **발행인** 변영숙
-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오현석, 이옥희, 김덕춘, 신미정, 황성원
  장순향, 김미재, 이미지, 박지영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우)706-220
- **전화** 053-791-6879
-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